□ 호주 소비동향

○ OECD조사에 따르면, 2007년 호주의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(순수 알코올 기준)은 10리로 OECD 국가 중 11위를 차지함. 참고로 한국은 연간 주류 소비량이 8리로 18위를 기록했음.

○ 건강을 고려한 음주문화 확산

- IBIS World에 따르면, 호주는 문화가 비슷한 영어권 선진국(영국, 미국 등)에 비해 와인소비량이 전통적으로 많음. 특히 최근에는 와인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맥주, 양주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
- 호주는 18세 이상부터 음주가 가능한데, 음주 가능 성인 중 66%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와인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돼 호주가 영국(59%)과 미국(33%) 대비 와인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음

- 호주의 인구 2200만 명 중 약 절반인 1080만 명이 정기적으로 와인을 소비하며, 주 소비 연령층은 45~65세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남

- 호주 내 와인 소비 증가에는 와인가격 하락도 한몫했음. 호주는 최근 와인 생산량의 증가로 와인 업체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해져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와인 소매가격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음

- 와인 소비는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, 이는 호주인들이 여름철에 야외 바비큐를 즐기며 이 때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이는 문화 때문임